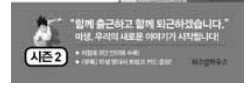


未生 '미생 10' 돌아온 장그래 '완생' 할까

광주 출신 윤태호 작가, 더 치열해진 샐러리맨의 삶 생생하게 그려



‘장그래가 돌아왔다’

‘직장생활의 교본’, ‘샐러리맨 만화의 정석’으로 불리며 신드롬까지 일으킨 웹툰 ‘미생’이 작년 11월 두 번째 시즌을 시작했다. 시즌 2를 단행본으로 엮는 ‘미생 10’이 위즈덤하우스에서 출간됐다.

광주 출신 윤태호 작가는 2일 열린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미생은 바위에다 제 이름을 새겨준 작품”이라며 “악의를 가진 사람이 시멘트를 발라버리기 전까지 (그 이름은) 남아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미생은 제 가족, 회사, 문화생활이 다 같이 먹고살 수 있게 해준 작품”이라는 현실적인 설명도 곁들였다.

지난 11월부터 포털 다음에 연재된 시즌 2는 오 차장이 새롭게 설립한 회사에 장그래, 김 대리가 합류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배경이 바뀐 만큼 더 치열해진 샐러리맨의 삶이 생생하게 그려진다. 윤 작가는 3년 연재를 목표로, 크게 3부로 시즌 2를 연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1부에서는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돈을 운영하는 회계 시스템과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경영자의 판단을 주로 다룰 예정이다. 2부는 ‘신입사원 4인방’이 각각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속으로 해외에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는지 그린다. 마지막 3부에서는 결혼준비를 맞은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담긴다.

직장생활 경험이 없는 윤 작가는 중소기업 샐러리맨의 삶을 생생하게 그리기 위해 시즌 1에서와 마찬가지로 치열하게 취재했다. 그는 회계사를 만나 직접 자문을 구했고,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무역

미생 ‘시즌 2’ 3년간 연재 이창호 9단 대국 동반자로 신입사원 4명 이야기 담아 100권짜리 교양만화도 준비

보험공사를 찾아가 상담에 귀를 기울였다. 거기서 들은 무역 전문용어를 알지 못해 찢찢매기도 했지만 시즌 1의 성공 이후 주위에서 많은 도움이 쏟아졌다.

그렇다면 요즘 세대의 결혼은 다른 3부는 어떻게 취재했을까. 윤 작가는 “포털계 시판을 탐독하고 있다”며 “계시판에 가보면 결혼 이슈들이 풍성하게 올라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수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즌 1을 시작하며 워낙 취재가 어려워 ‘지옥을 맞는다’는 마음으로 연재했다”며 “주인공 장그래 이름도 연재를 하면서 만들 정도로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시즌 2는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 연재하려고 했는데 전혀 그럴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지금은 드라마 팬을 포함한 다양한 분을 만족하게 해야 해요. 그래서 댓글 보면 이분들 사이에서 다채로운 충돌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기도 해요. 요즘 ‘미생’이란 작품이 여기저기서 인용이 되니 그것에 대한 값인가 보다 하고 있어요.”

시즌 1은 조훈현 9단이 한국 바둑 역사상 최초로 세계 챔피언에 올랐던 제1회 응씨배 결승 5번기 최종국을 다뤘다. 시즌 2는 조 9단의 제자인 이창호 9단이 명실공히 세계 챔피언이 되는 1999년 삼성화재배 결승 5번기 최종국을 동반자로 삼았다.



윤태호 작가가 2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열린 ‘미생10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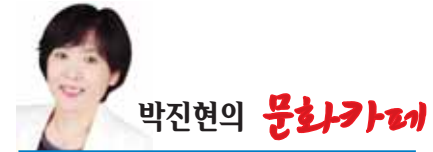
윤 작가는 “이창호 9단이 스승 조훈현 9단의 타이틀을 가져온 대국을 쓸까도 생각했지만 300수가 넘어간다는 이야기에 바로 포기했다”며 “자문해주는 박치문 선생의 조언을 받아들여 9단이 세계타이틀을 가져오는 대국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첫 웹툰 작품이었던 ‘이끼’를 비롯해 ‘내부자들’, ‘미생’까지 큰 인기를 끌며 ‘불패작가’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이 작품들은 드라마, 영화로도 만들어져 큰 히트를 쳤다. 그가 생각하는 비결은 무엇인지 물었다.

“저는 땅에서 떨어진 이야기나 잘 좋아해요. 땅바닥을 디딘 이야기를 좋아하죠. 저는 실제 있는 이야기 같은 느낌을 주는

데 주력해요. 그런 면에서 등장인물의 대사도 중요하죠. 만약 설정이 비현실적이면 언어로 현실감을 주려고 하고, 말에 만화적 효과가 들어가면 상황 자체를 현실적으로 만들어요. 작위적이거나 연극적 분위기는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독자들이 가까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매력이지요.”

그는 바이브릿지라는 출판사를 세워 100권짜리 교양만화를 준비 중이다. 몇 년 전 남극 세종기지를 다녀온 경험을 바탕으로 남극 만화도 기획하고 있다. 남극만화는 애니메이션, 음반도 동시에 추진 중이다. 그는 남극 만화를 뮤지컬로 확장하고, 그린란드에도 가고 싶다고 밝혔다. 해외 진출 욕심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몇 년 전 취재차 둘러본 예술의 도시 파리는 명불허전이었다. 루브르 박물관, 노틀담 성당, 오르세미술관, 몽파르트 언덕, 샹젤리제 거리... 짧은 일정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끌린 듯 파리의 곳곳을 누비던 기억이 생생하다. 눈의 즐거움은 다리의 무게를 잊게 한다고 했다가. 하지만 지금도 가끔 떠오르는 풍경은 기념비적인 문화명승지나 공원, 성당이 아닌 ‘책 읽는’ 파리지역들이다. 소설가 헤밍웨이, 제임스 조이스 등의 아지트였던 책방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나 소르본 대학 앞 광장의 ‘브랭’ 등 크고 작은 카

책 읽는 풍경

페에서 책을 읽으며 한낮의 오후를 즐기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풍경화를 보는 듯 했다. 어쩌나 마음에 와 닿던지 나도 모르게 카메라 셔터를 눌렀었다.

책 읽는 파리 시민들의 모습은 비단 카페나 서점만이 아니었다. 도시 어디를 가도 쉽게 만날 수 있는 삶의 한 부분이었다. 지하철이나, 버스, 공원 풀밭 위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책을 읽고 있었다.

며칠 전 광주 율리움의 한 카페에서도 책 읽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났다. 지인의 초대로 합석하게 된 이 독서모임은 4년 전부터 40~50대 여성 8명이 매월 읽을 책을 고른 후 정기적으로 만나 커피를 마시며 독후감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이날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책은 지난 1월 세상을 떠난 고신영복 교수의 ‘담론’이었다. 지난해 11월 독서목록으로 미리 선정했었지만 신 교수의 갑작스런 별세로 이들에겐 특별한 책이 됐다.

그렇게 일까. ‘담론’에 대한 느낌

을 이야기 하는 이들의 모습은 자못 진지했다. “(가을에 나뭇가지 끝에 하나 남겨둔) 과일은 새봄의 새싹으로 돌아오고, 다시 자라서 나무가 되고, 이윽고 숲이 되는 장구한 세월을 보여준다. 한 알의 외로운 석과가 산야를 덮는 거대한 숲으로 나아가는 석과불식(碩果不食)의 요체는 사람을 키우는 일이다.” 이들은 책 마지막 장에 소개된 석과불식에 대한 선생의 가르침에 공감하면서 독서로 그치지 않고 이를 생활에서 실천하자며 자리를 끝냈다.

최근 광주지역 성인들의 독서량 이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

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00명과 초·중·고교생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 광주지역 성인 1명의 독서량이 8.4권으로 서울 13.2권, 인천 13.1권, 대전 11.2권 등 6개 광역시 중 꼴찌였다. 특히 주말과 휴일에는 그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책 읽기는 나의 세계를 확장하며 삶을 보다 의미있게 만들어가는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책을 얼마나 읽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내가 읽은 책은 곧 나의 우주다” (중에서) 고 했다. 물론 생업에 지친 사람들에게 독서는 한가한 예기일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을 바꾸면 얼마든지 책과 친해질 수 있다. 장소를 가리지 않는 ‘책 읽는 파리’처럼. 중요한 건 책 읽는 시간 보다 독서 습관이다. 책 읽는 예방, 상상만 해도 흐뭇하다. <편집부칼럼·문화선임기자>

국립나주박물관 ‘마한 문화 아카데미’

내일~6월 9일 유적 현장답사 등 총 17강좌

국립나주박물관(관장 박종환)이 국립나주박물관 후원회(회장 이순숙)와 공동으로 시민 교양강좌 ‘마한 문화 아카데미’를 진행한다.

올해 강좌는 4일부터 6월 9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국립나주박물관 체험학습실에서 진행된다. 마한의 역사와 문화는 물론, 시대와 주제별로 다양한 강좌가 열릴 예정이다.

4일 개강 강좌는 정재운 광주대학교 교수가 ‘웅진백제와 마한’을 주제로 진행한다. 이어 ‘서남해안 패총이 이야기 하는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김건수 목포대 교수), ‘삼국사기 마한 기록의 비판적 검토’(이강래 전남대 교수) 등이 마련됐다. 특히 3월에는 ‘전남 지역의 고인돌 문화와 마한’(이영문 목포대 교수) 강의와 화산 고인돌 공원 답사 등으로 구성된 ‘고인돌’을 주제로 한 특집 강좌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5월 26일에는 웅진백제 지역의 공주 공산성, 무령왕릉, 우금치 등 마한·백제 관련 유적의 현장 답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총 17회 강좌 중 10회 이상 참석 시, 수료증도 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을 통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신청·문의 061-330-7825.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지난해 진행된 국립나주박물관 ‘마한 문화 아카데미’ 백제유적 답사.

광주시립미술관, ‘국제레지던시 프로그램’ 작가 모집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이 ‘2016년도 국제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할 작가를 모집한다.

광주작가 파견기관으로는 중국 상해, 히말라야미술관(주각각 국제레지던스)과 중국 광저우, 레드토리 아트디자인 팩토리리 각 기관별 각각 2명씩을 선정해, 선정된 작가는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작가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작가 지원사항은 각 파

견기관에서 스튜디오와 거주공간을 제공받게 되며, 광주시립미술관은 국제 왕복항공료와 창작지원비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 만 50세 이하 광주지역 출신작가로 영어 혹은 중국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접수는 22~24일까지 미술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하면 된다. 문의 062-613-715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대한민국 모두가
★몸신이 되는 그 날까지!

나는 몸신이 다

매주 수요일 밤 11시

이용식 엄영란 조민희 변우민 MC / 정은아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스카이라이프 13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해남 영암 진도 장흥	IPTV 18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A
www.ichannelA.com